

## 제1절 창사 5주년, 세계로 미래로

### 1. 국내외 교류 확대

#### 수도권 및 지방지국 개설

TV 개국을 전후하여 수도권에 지국을 개설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지역 관련 뉴스나 민원 사항을 심도있게 취재,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지국 개설을 완료한 SBS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 4월 3일, 보도국에 제2사회부를 신설했다. 제2사회부는 같은 해 9월 7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방지국을 개설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취재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4년 2월 1일 제2사회부는 전국부로 이름이 바뀌어 각 지국을 관리하면서 전국의 뉴스와 풍물을 취재, 보도했다. 각 지국은 독자적인 취재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합동으로 취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해 페리호 침몰', '강릉 무장공비 침투',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시프

린스호 기름 누출'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2000년 4월 18일, 수도권지국은 사회2CP 소관으로 편제되었다.

수도권지국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1991년 12월 2일 개설한 성남지국이었다. 김문환 기자를 비롯하여 PD, 카메라맨, 엔지니어, 운전기사, 여직원 각 1명이 성남시 신흥동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때까지 각 지국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SBS 남산송신소로 취재 화상을 직접 쏘아보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찾아들게 되었던 것이다. 성남지국의 관할 지역은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과천, 안양 등지였다. 1992년 수도권 각 지국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설치되면서, 성남지국은 수정구 태평2동으로 이전했다. 1998년 2월, 성남지국은 일시 폐쇄되었다가 1999년 9월 다시 문을 연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취재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1년 12월 23일 채흥기 기자를 비롯한 5명이 인천

시 남구 구월동에 사무실을 열고 인천지국을 개설했다. 인천지국은 1992년 남동구 구월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지국은 인천을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 김포, 안산, 강화도, 백령도 및 인근 섬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국은 1992년 2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문을 열었다. 이영춘 기사를 비롯하여 5명으로 구성된 취재팀은 수원, 화성, 시흥, 안산, 안성, 오산, 용인, 평택 등 경기도 남서부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 마이크로 웨이브가 설치되기 전에는 취재 테이프를 열차로 수송하여 마감 뉴스에 늦지 않도록 영등포역에 대기하고 있는 본사 차량에 인계하느라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992년 수원지국은 프라자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지국은 1992년 3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문을 열었다. 송금호 기사를 비롯한 5명의 직원으로 출범한 의정부지국은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포천, 연천, 가평, 고양, 양주, 구리, 미금 등 경기도 북서부를 관할 지역으로 취재활동을 시작했다. 의정부지국은 1998년 2월 폐쇄되었다가 1999년 9월 재개설되었다.

취재망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전국방송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SBS는 1992년 9월 7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일제히 지방지국을 개설했다. 지국 규모는 취재 기사를 중심으로 카메라맨, 엔지니어, 운전기사, 여직원 등 5명씩이었다. 부산지국은 이성림 기사를 비롯한 5명이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대구지국은 이성원 기자 등이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대전지국은 김홍식 기자 등이 대전시 중구 선화2동에, 광주지국은 임광기 기자 등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각각 사무실을 열고 취재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지국은 부산과 경남 일원을 관할하고 있지만 SBS 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개국 초기에는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제보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선방송을 통해 SBS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부산지국의 취재활동도 본격화되어 낙동강 오염 실태를 비롯하여 전국적 관심을 유발할 만한 기획물을 다수 취재, 보도했다. 대구지국은 개국 초기부터 환경 문제에 접근하여 지리산 쓰레기 오염 실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흑두루미 감소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광주지국은 개설하자마자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페리호 침몰, 시프린스호 기름 누출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고가 잇달아 이를 집중 보도했다. 이어 임광기 기자는 도지사 관사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 도청 소재지마다 지어 놓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호화관 '지방청와대' 현황을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전두환 정권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국민의 호된 비난을 받았고, 1년에 한 번 들릴까말까한 혈세 낭비의 현장은 속속 바람직한 시민공간으로 환원됐다.

갑천 오염, 고속전철 기반공사의 문제점 등을 심층 고발하여 개국 초기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전지국은 연이어 EXPO 관련 보도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에도 지국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관련 뉴스를 심도있게 취재, 보도하고 있다.

전국 취재망이 확보되자 SBS는 1992년 9월 초까지는 수도권지국에, 11월 중순까지는 지방지국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설치 완료하여 신속하고 생생한 뉴스 보도를 개시했다. 이들 지방지국은 1995년 5월 15일, SBS가 새로 탄생한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등 지역 민방과 제휴하면서 지국 업무 일체를 제휴사로 이관하고 일시에 폐쇄되었다.

1995년 3월 29일에는 김희남 기사를 비롯한 5명이 강릉지국을, 4월 7일에는 이용탁 기자 등 5명이 제주지국을 개설하면서 SBS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취재망을 확대했다.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 자리잡은 강릉지국은 백두대간의 수려한 풍광과 동해안 일대의 절경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많이 소개했다. 제주시 연동에 자리잡은 제주지국은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제주의 이국적인 자연 경관과 독특한 습속을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안내했다.

5월 15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국을 폐쇄한 뒤 지역민방과의 뉴스 교류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11월 9일 울산지국을, 이어 11월 13일에는 대구지국을 개설했다. 울산지국은 남상우 기사를 비롯하여 직원 4명이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에 자리를 잡았다. 울산은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로 직할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었다. 울산지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취재, 보도하다가 1998년 2월, IMF사태로 인해 폐쇄되었다. 대구지국은 남달구 기사를 비롯한 직원 5명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문을 열고 영남 북부권 소식을 취재, 보도했다.

1999년에는 회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위해 전국 지국을 재정비하여 현재는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등 수도권지국과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제주 등 지방지국을 합쳐 총 9개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 전국 네트워크 구축

1993년에 접어들면서 지역민방 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수도권에만 방영되고 있는 SBS 프로그램에 대한 타 지역 주민들의 시청 요구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94년 4월 정부는 지역 민영 TV 방송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설립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1차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민방 설립을 허가하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 공표됐다.

SBS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KBS나 MBC는 이미 자체 지방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CATV나 독립 프로덕션 가운데서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에 신설 지역 민방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 민영방송 네트워크 구축을 축하하는 '민방의 새비람, 전국을 하나로.'

무 편성 비율 15%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은 SBS뿐이었다. SBS는 지방지국을 통해 조사해두었던 자료를 토대로 즉각 지역민방제휴추진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제휴에 따르는 실무 준비를 마치고 기획부 내에 네트워크관리팀을 편제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1994년 8월 10일, 정부는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을 지역민방 설립사로 최종 발표했다. SBS는 8월 16일 본사에서 제1차 지역민방경영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회사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1995년 4월 4일, 본사에서 SBS 윤혁기 사장과 4개 지역민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별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 10일,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세부협약의 골자는 SBS가 지역민방의 자립과 발전을 대폭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SBS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지국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로웨이를 지역민방으로 옮기는 한편, 상하행선 단방향 회선을 양방향 회선으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본사와 대구 사이의 회선망은 검단산, 대관령 및 팔공산중계소를 우회하도록 설치하여 2차 지역민방 개국에 대비했다. 제주지국은 무등산중계소의 마이크로웨이를 연결함으로써 지국 활동의 조기 정착을 도왔다. 이와 함께 지역민방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옥이 이모」, 「아스팔트 사나이」 등이 지역민방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최초의 작품들이었다. 지역민방 개국 축하 프로그램도 다채로운 종목을 준비했다.

1995년 5월 14일 오전 8시,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등 4개 지역민방이 일제히 개국했다. SBS는 11시간에 걸친 네트워크 편성으로 지역민방 개국을 축하했다. 지역민방은 「SBS 8 뉴스」를 비롯하여 S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SBS는 명실공히 전국방송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정부가 제2차 지역민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SBS는 지역민방 신입사원에 대한 합동 연수를 실시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대비했다. 제2차 지역민방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SBS는 이들과 방송협정을 체결하고 네트워크 확대에 들어갔다. 먼저 8월 30일, 울산방송과 기본협정 및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8월 1일 개국한 울산방송은 SBS와 네트워크 시간대, 보도, 광고, TV 회선 및 장비 사용, 프로그램 공급권료 등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각종 SBS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9월 24일에는 전주방송과, 9월 30일에는 청주방송과 각각 같은 내용으로 방송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11월 28일에는 대구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협약을, 12월 11일에는 부산방송과 FM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1998년 1월 30일에는 광주방송과 FM 방송협약을, 2



민영방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지역민방간담회.

월 19일에는 대전방송과 FM 업무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라디오도 전국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SBS의 전국방송 시대를 열었다.

#### 외국 언론사와 제휴 체결

무역 대국,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SBS는 각계의 국제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위성 중계방송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용회선 설치를 마치고 1991년 11월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전용회선은 해외 언론사의 뉴스와 자체 특파원들의 취재 내용을 수신하고 SBS의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데 활용되었다.

국제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세계 유명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SBS는 먼저 1991년 7월 일본 최고 민영 방송사인 NTV와 상호 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SBS는 NTV와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해왔으며 일본 동경에 지국을 개설할 때 사무실을 제공받았다. 12월 7일에는 미국 NBC, 러시아 RTR사와도 같은 내용의 방송협정을 체결했다.

1993년에는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을 비롯하여 로이터TV, WTN, Visnews 등 뉴스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

하여 뉴스 공급망을 확대한 데 이어, AP, UPI, AFP, 로이터 등 세계 4대 통신사와도 뉴스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BS는 세계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안방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SBS는 중국대륙에 눈을 돌려 1993년 2월 중국 베이징TV와 방송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으로 확대될 양국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이 협정은 1992년 양국 국교 수립 이후 방송분야 최초로 맺은 공식 협정이었다. 동시에 대만 CTV와도 협정을 맺어 다른 시각에서 아시아권을 조망할 수 있는 뉴스 공급원을 확보했다.

1995년 1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TV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동남아 진출 교두보로서도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1996년 6월에는 홍콩 TVB와 방송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국제 협력 관계 구축으로 SBS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취재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 제작 기술 교류를 통해 21세기 첨단 운영 시스템을 향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외지국 및 지사 개설

세계 주요 지역에 지국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취재, 보도를 할 필요성에 따라 1991년 2월 11일, SBS는



해외 유명 방송사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 워싱턴지국을 설치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자리 잡은 워싱턴지국은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남북아메리카 전역의 뉴스와 문화, 경제적인 관심사를 취재, 보도했다. 초대 특파원으로 파견된 맹형규 부장이 「SBS 8 뉴스」 앵커로 선발되어 귀국하면서 그 해 10월, 백낙천 부장이 뒤를 이었고, 이후 워싱턴지국은 하금열, 하남신 특파원을 거쳐 현재는 최금락 특파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월 1일에는 프랑스 파리지국이 문을 열었다. 초대 특파원으로 파견된 김형민 기사는 거래 관행이 판이한 이국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교포 유학생을 카메라맨으로 채용하여 취재 교육을 시키는 등 고초를 겪으며 만 3년 동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 특히 공산체제 붕괴로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는 동구권 소식을 심층 취재, 보도했다. 2대 신동욱 특파원을 거쳐 현재는 이정은 기사가 주재하고 있는 파리지국은 필요할 때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취재, 보도한다.

10월 15일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동경지국을 개설했다. 일본은 제일 교포 지위 문제, 북한과의 관계, 과거사와 얽힌 갈등, 독도 문제 등 첨예한 관심사들이 많아 그때나 지금이나 동경발 뉴스는 내신(內信)과 대등한 비중으로 취급되고 있다.

12월에는 해외지국 중 처음으로 위성 송신시설과 간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빠른 시간에 뉴스를 전달하고 필요할 때는 위성 생중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초대 특파원은 박수택 기자였다. 동경지국은 1991년 12월, 지국장

제를 신설하여 오효진 이사대우가 초대 지국장으로 근무했으며, 1994년 5월에는 동경지사로 승격하여 김광수, 송도균 지사장을 거쳐 변건 지사장을 끝으로 지사장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특파원은 2대 때부터 2명씩 근무하게 되어 2대 김성우, 박진원, 3대 조윤중, 박진원 특파원을 거쳐 지금은 이왕돈, 조윤중 특파원이 근무 중이다.

1992년 1월에는 김성호 특파원을 파견하여 소련에 모스크바지국을 개설했다. 모스크바지국은 박재만, 신우선 특파원을 거쳐 1999년 1월 폐쇄되었다. 9월에는 안상륜 특파원을 파견하여 홍콩지국을 개설했다. 홍콩지국은 1993년 5월 문을 닫은 뒤 1997년 3월 재개설했다가 1998년 2월 완전히 폐쇄되었다.

1993년 5월 안상륜 특파원이 개설한 북경지국은 중국 정부의 폐쇄적 성향 때문에 윤세영 사장이 직접 당국자를 찾아가 만난 뒤에야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후 안상륜 특파원은 주로 중국 문화와 풍물을 취재, 방송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북경지국은 장동훈 특파원을 거쳐 현재는 김천홍 특파원이 활동 중이다.

1994년 3월에는 민충기 특파원을 파견, 미국에 뉴욕지국을 개설했다. 민충기 특파원은 당시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됐던 북한 핵 문제 취재를 위해 뉴욕과 유럽을 오가며 거의 주재 기간 내내 핵 문제에 매달렸다. 뉴욕지국은 김진원 특파원에 이어 현재는 엄광석 특파원이 활약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 허원재 특파원을 파견하여 본지



해외지국 설치를 통해 크고 작은 해외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사진은 동경특파원이었던 박수택 기자의 취재 모습.

국을 개설했다. 본지국은 이선명 특파원을 끝으로 1998년 3월 폐쇄되었다.

해외지국과 별도로 국제화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해외지사 설립도 병행했다. 1992년 3월 20일, SBS는 해외총괄본부로 뉴욕에 SBS USA를 설립한 데 이어 3월 24일에는 SBS USA의 LA지사인 SBS America를 설립, 각각 신망 있는 현지 교포를 사장에 임명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후 SBS USA는 해외 교포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사업, 현지 방송정보 수집, 해외 프로그램 구매, 국제 이벤트사업 등을 관장하며 SBS의 국제화 사업을 주도해왔다. SBS America는 얼마 뒤 SBS USA에 흡수, 합병되었다.

## 2. 도약을 위한 체제 정비

1994년 신년사에서 윤세영 사장은 앞으로 3년을 1단계 도약기로 선언하고 힘차게 새해를 열었다. 그 선언은 난시청 개선 완료, 등촌동공개홀 및 고양송신소 준공 등 회사의 해묵은 과제를 완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AM 스테레오방송을 실시하여 SBS 위상을 드높인 데서 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창사 초기부터 각종 문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을 계획해오고 있던 SBS문화재단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출범할 수 있게 된 재정적 배경도 SBS의 새 출발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1993년을 제1단계 창업 완료의 해로 설정했던 경영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3월 11일, 제4차 이사회에서는 윤세영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윤혁기 이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SBS는 창업기가 끝나고 체제가 안정되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방송업무를 일임하고자 했던 장기 경영계획을 한 단계 전진시키며 자신있게 경영 2기를 맞았다. 윤혁기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TBC와 KBS에서 방송 경륜을 쌓았으며, SBS 이사로 선임될 당시에는 방송개발원장으로 봉직 중이었다.

1995년은 SBS가 전국방송을 구현한 뜻깊은 해였다. 윤세영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1995년을 '제2창사 원년'으로 선언하고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거듭 당부했다. 그 당부에 대해 임직원들은 「모래시계」로 화답했다. 우리나라 방송사(放送史)에서 1995년은 SBS의 해요, 「모래시계」의 해였다. 방송위원회 조사에서도 SBS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BS의 제작 역량이 궤도에 올라섰음을 입증했다.

5월 14일은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등 지역민방 개국과 함께 SBS가 전국방송으로 도약한 날이었다. SBS는 11시간에 걸친 생방송으로 지역민방 개국을 축하하고 SBS의 주요 프로그램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10월 6일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기구 조직 개편 및